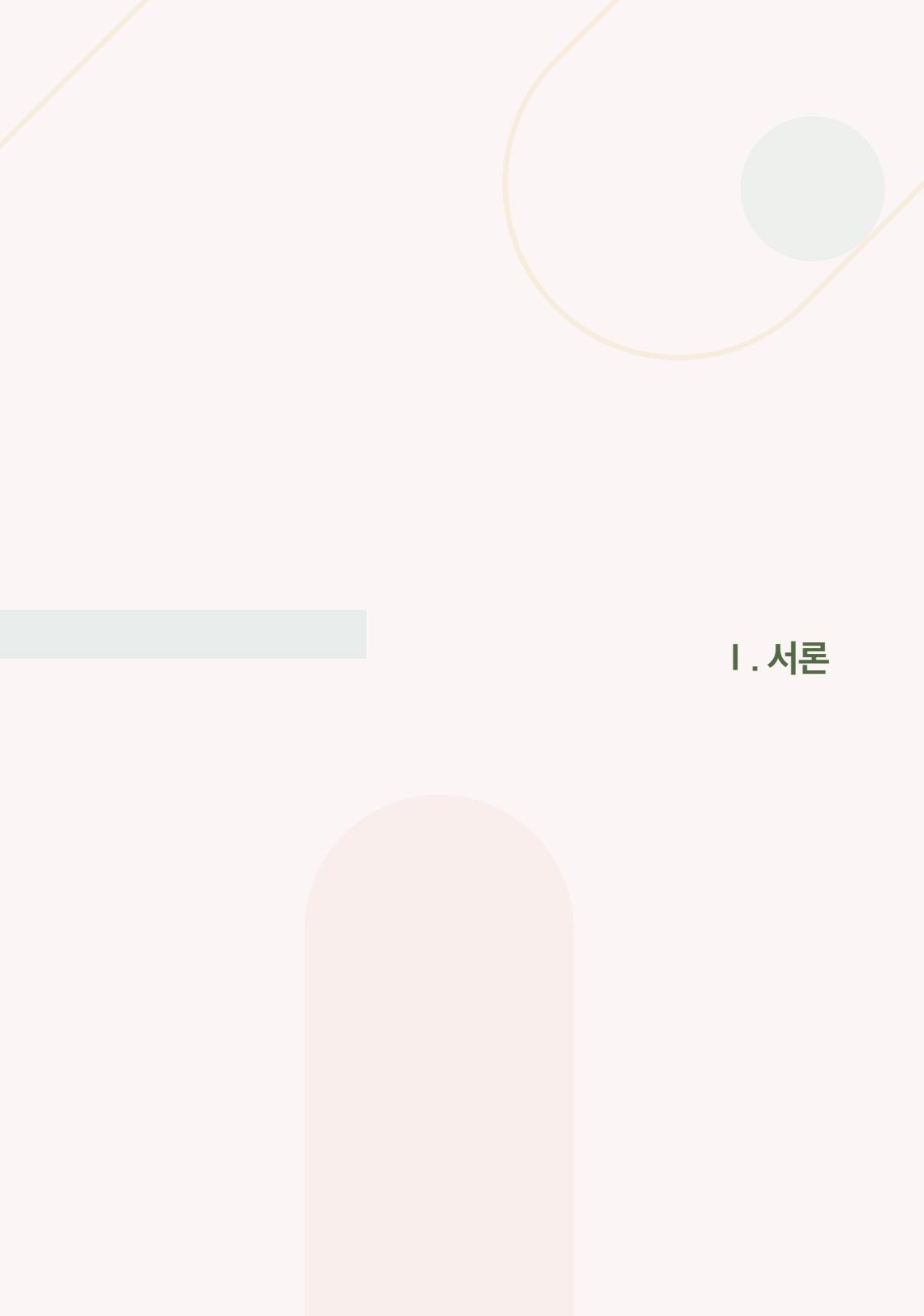


느린학습자의 병영생활에 관한 사례 연구

좋은동네연구소 협동조합(연구책임:송하웅, 연구진: 김현성, 원석현)

목차

I. 서론	6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6
2.연구 목적과 범위	9
3.연구 방법.....	9
II. 느린학습자와 군대	12
1.느린학습자란?	12
2.느린학습자의 정신병리와 군대의 부조화	14
3.군대	16
4.군 인권 문제를 통해 본 느린학습자의 어려움	20
III. 현역 병역시스템	28
IV. 인터뷰 분석	36
V. 정책 제안	46
1.느린학습자의 군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46
2.느린학습자를 선별할 수 있는 병역입영 관리시스템 구축	46
3.군대 내 시스템 개혁	47
4.현역 복무 부적합 정도에 따른 병역처분의 다양화	48
5.느린학습자 당사자와 가족들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48
VI. 결론	52
참고문헌	53



1. 서론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30세대로 구성된 연구팀은 개인적인 군대 경험을 통해 느린학습자와 군대라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체험

- 연구에 앞선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모두가 군대에서 느린학습자를 만났다고 기억했으며 다들 부정적인 기억에 대해 증언함
- 부정적인 기억은 다양하게 나타남. 첫째, 느린학습자가 군 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공동체 생활이 어려웠다는 기억, 둘째 느린학습자가 군대에서 부조리, 왕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목격했다는 기억, 셋째, “빨래병”, “화장실병”으로 불리며 상병과 병장으로 계급이 올라가도 허드렛일만 하다가 전역했다는 기억 등이 있었음
- 부정적인 기억은 동시에 자기성찰로 이어짐. 나는 느린학습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그것을 목격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혹시 방관자를 넘어 가해자는 아니었는가? 등의 고민을 하게 됨
- 이런 자기고민 속에서 느린학습자와 군대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본 연구는 연구의 기본인 “거리두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느린학습자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관점이 앞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온기 있는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자평

○ 모든 남성 느린학습자에게 군입대 및 병영생활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주요 관심사임

- 2018년 느린학습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자녀의 미래에

- 관한 걱정에서 “군대 문제”가 나타남(동북권NPO지원센터,2018). 조사참여자의 대다수가 초등학생 이하의 학부모였다는 점에서 군대 문제가 느린학습자 가정에 주는 무게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 연구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2019년 느린학습자와 청년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에 따르면, 입대를 앞둔 남성 청년 느린학습자의 경우, 다른 대화에서도 군대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군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확인함

○ 많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입대 직전에 본인이 경계선지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성장하면서 학습 부진이나 사회적 관계능력 부족으로 고통받았지만, 특별한 의심 없이 지내왔던 경우 입대 과정에서 신체검사 등을 통해 갑작스럽게 알게 되는 것임
- 최초 신체검사에서 4급 이하를 받거나 입대 후 신체검사에서 발견되어 귀가 조치되거나 군 복무 중 상관의 권유에 의해 정밀검사 후 조기 전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이외에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도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귀가 조치가 되기도 함
- 하지만 상당수는 몇 차례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군 생활을 지속하거나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 병역을 마치는 것으로 파악됨

○ 비느린학습자 청년들도 군대에 대한 고민이 크고 실제로 군 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느린학습자의 경우, 더 크고 더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내무반 생활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

-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내무반)은 지금은 ‘군기 잡기’ 등 군 부조리가 많이 줄어들고 개인 시간이 보장되며 개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많은 환경개선이 진행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여전히 힘든 곳으로 나타남
- 경계선지능 청년의 경우 다른 청년과 다르게 적응을 강제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됨.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좀 참아봐”, “곧 익숙해질 거야”라는 말은 그들에게 전혀 위로되지 못함

○ 즉, 남성 느린학습자의 군 문제를 다루고 이들의 어려움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

- 이 연구는 대안 마련에 앞서 느린학습자 당사자와 부모 등 주변 인물, 군 관계자 등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느린학습자의 병영생활에 대한 경험 전 인식과 실태, 부적응 문제, 필요 지원체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임

○ 한 가지 강조할 것은 모든 느린학습자가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 일반적으로 느린학습자의 특성과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느린학습자=군대 부적응자”라는 등식은 법칙이 아님
- 많은 느린학습자가 군 생활을 무난히 마치고 돌아왔고 이는 인터뷰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됨

2. 연구 목적과 범위

○ 연구의 목적

- 느린학습자의 군대 문제에 관한 기초연구
- 느린학습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군 복무를 위한 탐색적 연구

○ 연구의 범위

- 군 입대 전후의 느린학습자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
- 병역체계, 군대 일반, 군대 인권 문제 등 군대 영역 전반
- 관련 초보적인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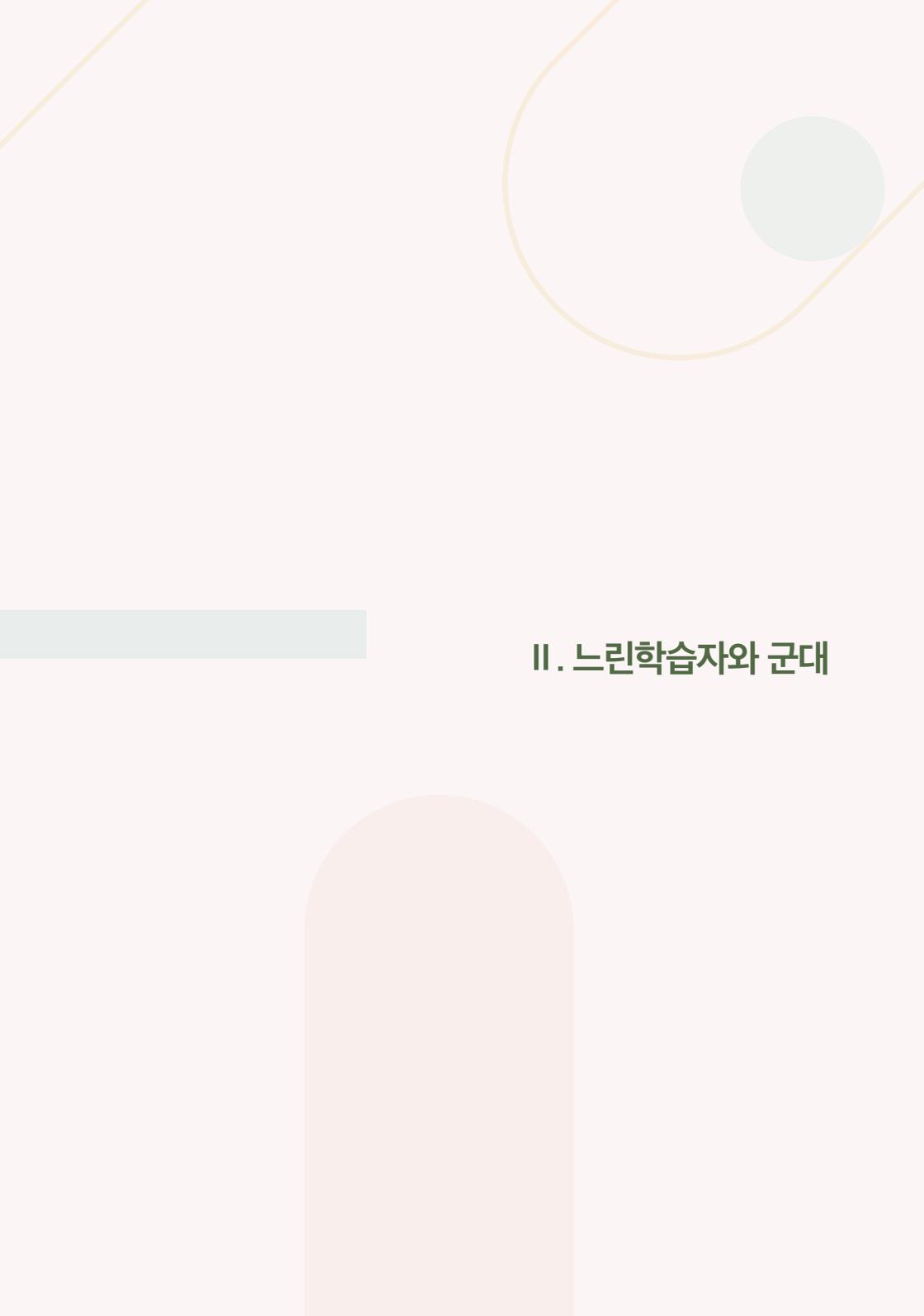
3.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느린학습자, 군대 관련 문헌 연구
- 관련 언론 보도 분석

○ 느린학습자 및 관계자 인터뷰

- 느린학습자 당사자와 가족,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
- 느린학습자 관련 전문가 자문



II. 느린학습자와 군대

II. 느린학습자와 군대

1. 느린학습자란?

○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에서 느린학습자를 “지능 검사 결과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1과 -2 사이인 IQ 70~85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 장애군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최근 개정된 미국정신의학 진단 및 통계편람(DSM-V)에서도 경계선지능을 임상적 주의가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태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음
- 여러 연구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불안장애, 정서장애 및 우울장애 등을 경계선지적기능과 동반될 수 있는 정신병리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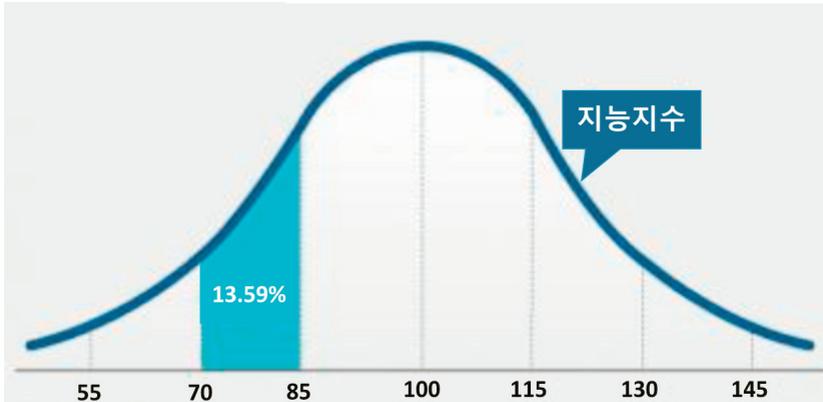
○ 느린학습자는 외관상으로는 지적장애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의사소통도 가능하기에 주위로부터 고의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오해를 사기도 함

- 다시 말해 개인 활동(화장실, 식사), 사회활동, 대인관계, 단순직업활동 등의 전반적인 수행은 가능하나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활동에 어려움을 느낌
- 또한,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지닌 상황이 지속되면서 좌절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있거나 학습된 무기력이 심화되거나 신경증, 물질남용, 성격장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보고됨
- 실제로 영국 사례에서는 느린학습자 성인의 경우, 85 이상의 IQ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신경증 장애, 약물 남용, 성격장애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정신과 약물 처방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느린학습자는 대략 하위 13.59%가량이 해당한다고 하며, 생각보다 흔하지만, 사회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지 못함

- 이는 지적장애 전체 집단 2.3%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숫자임
- 또한, 정신과적 장애가 비장애인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신경증, 물질남용, 성격장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전체 지적장애인과 비교해 파괴적 행동, 과잉행동, 주의집중 관련 문제, 대인 간 인지적 문제해결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이차적인 문제점들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됨(서해정 외, 2019)
- 결론적으로 느린학습자는 비장애로 충분한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상당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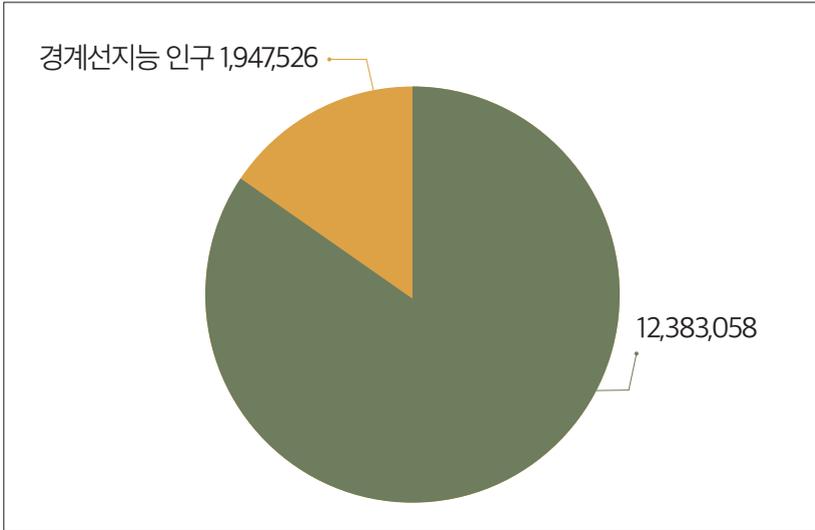
[그림]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



출처: 미국 정신건강의학회

○ 2019년 기준 전체 청년(19~39세)인구 14,330,584명 대비 1,947,526명이 청년 느린학습자 인구로 볼 수 있음

[그림2] 2019년 청년인구와 경계선지능 인구



2. 느린학습자의 정신병리와 군대의 부조화¹⁾

○ 느린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신병리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됨

- 문제는 이런 정신병리가 군대 내 부적응 사례에서 보고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
- 단, 모든 느린학습자가 제시된 정신병리를 겪는 것은 아니며 군 생활을 무난하게 잘 마친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바,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함

1) 이하의 내용은 한국간호학회(2013), <보호관심병사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정신건강상태>를 정리한 내용임.

○ 적대적 반항장애

- 적대적 반항 장애는 권위적인 인물(경찰관, 양육자, 교사 등)에 대해 부정적이고 반항적이며 불순종적이고 적대적인 행동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군대는 권위적 조직”

○ 품행장애

- 품행장애는 타인의 기본 권리나 입장을 침해하거나, 나이에 적절하게 기대되는 주요 사회적 규범을 반복적 혹은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행동장애로 정의됨
… “영역별 스트레스는 본 연구대상자에게서 역할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음. 역할 스트레스는 역할 갈등이나 모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할 갈등은 직무의 일부분으로 여겨지지 않는 업무를 하거나 개인의 가치 또는 믿음에 상충되는 일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고, 역할 모호성은 군대와 같은 거대 조직 안에서 역할 정의와 과업내역이 불명확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 발생하게 됨”(김현례 외, 2013)

○ 불안장애

- 불안장애가 있으면 불안, 근심, 공포감이 매우 심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움
… “한 개인이 군에 입대하게 되면 생활환경의 변화 자체뿐 아니라 군대 내 엄격한 규율, 자유롭지 못한 생활, 긴장 상황 발생 등의 상황적 변화를 겪게 됨. 이러한 군대 생활의 특수성은 병사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개인이 스트레스 자극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신체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됨”(김현례 외, 2013)

○ 정서장애/우울장애

- 지적장애의 자살률이 매우 낮는데 비해 경계선 지적 기능의 경우 자살 비율이 그보다 높음. 주요 우울장애는 거의 끊임없이 우울하거나 짜증스러운 기분으로 지내거나 모든 혹은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음

… “보호관심병사들의 군 생활 부적응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정신건강 영역은 우울인 것으로 사료됨”(김현례 외, 2013)

3. 군대

○ 우리나라 군 제도는 징병제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군 집단

- 대부분 징병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군대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임.
- 군 입대 병사들의 연령은 대개 20대 초반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전환단계로 아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숙할 가능성이 큼. 또한, 군 복무로 인하여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군대조직의 특수한 문화와 청년 세대와의 불일치

- 군 조직은 조직화된 폭력을 합법적으로 수용하는 집단인 동시에 계급, 직책, 권위가 바탕인 위계 서열적 전투 집단임
- 한국의 군 시스템은 최소한 병사 차원에서는 계급, 위계, 서열을 약화시키려는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ex. 동기생활관, 병영생활행동강령 제정)을 기울였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까지도 군 조직은 경직되고 엄격하게 유지되는 관료제 조직인 반면, 젊은 장병은 자율성이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이러한 군 문화가 가지는 특수성은 장병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 한 연구에서는 모든 병사들이 환경 변화와 낮은 군 문화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함(이은주·유은광, 2018). 부적응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 병사들도 우울, 불안, 군 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에 부여된 임무는 크게 3가지로,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투력 발휘’, 전투력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훈련’, 그리고 비전투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부대관리’**

- 군대는 전투력 발휘와 교육 훈련이 핵심이지만 일상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자살, 성폭력, 탈영 등)가 점차 늘어나면서 부대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의제로 부상
- 특히, 현재 군 복무 중인 젊은 병사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군조직의 특성, 목표 및 가치와 상충하는 면이 많아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실제로 심각한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는 병사들의 대표적인 정신장애는 적응장애로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김민중·금명자, 2018)

○부대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보호관심병사의 분류와 관리

- 현재 군대에서는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는 병사들을 ‘보호관심병사’(보호관심병사란 군 생활 중 문제행동의 표출로 인해 부적응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병사를 말함)로 선별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병사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응캠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보호관심병사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로 대처능력이 낮고 자원이 부족한데다 부적응자로 선별되었다는 자기 낙인으로 인하여 위축되어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남

○보호관심병사에 관한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느린학습자가 포착됨

- 보호관심병사 중에서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한 20명 중 4명이, 외부병원에서 지능 검사를 한 병사들 중 3명이 경계선지능을 보였음. 이들 중 2명은 자대 복귀를 하였고, 5명은 전역을 함.²⁾(김주현 외, 2010)
- 보호관심병사 대부분이 이등병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흐르면서 부적응이 점차 해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느린학습자의 경우, 시간이 군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일반적인 군대 부적응 사례연구에서도 느린학습자가 간접적으로 나타남

- 군대 부적응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이 공통적으로 확

2) 해당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804명의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는 15명이 경계선지능 수준인 결과를 보였음. 경계선지능을 보이는 병사들 중 상당수가 군 복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인됨(이은주·유은광, 2018)

-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어쩔 수 없는 열외,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식적 삶의 연속, 가면 쓰기, 버티기, 자포자기, 좌절 등
- 느린학습자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적응과 열외,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경우 비느린학습자의 사례보다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되고 반면에 비느린학습자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식과 가면 쓰기는 어려운 상황임
- 느린학습자는 이미 학교생활에서 반복된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서 군대에서도 역시 부적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이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보고되는 내향성, 부정적인 자기상, 불안과 긴장, 대인관계의 실패 등은 군대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요인

<자료1> 연구에서 제시된 부적응병사 인터뷰 내용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긴장되고, 어눌합니다.

동기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궤병이라고 의심합니다. 눈치 봐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죄송합니다...

선임들이 저를 폐급이라고 부릅니다.

옆에서 선임들이 서로 소문 퍼뜨리고... 나와 상관없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른 중대에서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다.

출처: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자살 시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이은주·유은광, 2018)

○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주로 부적응병사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부적응병사 또한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함(이은주·유은광, 2018)

- 후술할 인터뷰에서도 군대를 마친 여러 느린학습자 청년들이 군대에서

적용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나타남. 선임과 간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이 맡은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들

-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느린 학습자가 군대에서 얼마나 부적응으로 고통을 받았고 또한 의사표현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끝난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었는지 짐작하기 어려움

4. 군 인권 문제를 통해 본 느린학습자의 어려움³⁾

○ 느린학습자가 군대에서 겪게 되는 문제는 관련 통계 등의 자료 부재로 인해 인권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음

-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군대 내 인권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병사의 경우 응답자 총 1,181명 중 모름과 무응답 431명(36.5%)이었고 ‘휴식 미보장’ 151명(12.8%), ‘부당한 사역’ 104명(8.8%), ‘비인격적 대우’ 94명(8.0%), ‘언어폭력(욕설 등)’ 91명(7.7%), ‘사적인 명령’ 87명(7.4%)으로 간접적 방법이 주를 이루었지만, ‘부당한 일차려’ 22명(1.9%), ‘따돌림’ 19명(1.6%), ‘성희롱’ 11명(0.9%), ‘구타 및 가혹행위’ 9명(0.8%) 등 직접적 침해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2005년과 비교할 때 매우 긍정이 5.9%▶9.3%로, 좋은 편이 22.3%▶39.4%로 각각 3.4%와 17.1%가 증가하여 병사들이 인식하는 군 인권보장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여전히 인권 문제는 군대 내에 지속해서 존재하고 있음

3) 이하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2019),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인권센터 <방해린 팀장>, 언론보도를 종합정리한 내용임

○부적응병사의 인권침해는 심각하며, 적응을 위해 인권침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충격적

- 부적응병사에 대한 인권침해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총응답자 308명 중 ‘병영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적응병사에게 표출’(31.5%), ‘관행’(27.6%), ‘군의 지위/관리와 통제’(25.0%), ‘부적응병사의 복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해서’(10.7%) 등의 이유가 제시됨
- 특히 부적응병사를 적응 유도하기 위해서 인권침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군대 내에서 부적응병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냄
- 느린학습자의 경우, 근본적으로 적응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과 부적응병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분위기가 결합되어 이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언어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차별도 존재

- 병사의 언어표현 부족에 따른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총 960명 중 3.8%인 36명이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느린학습자가 언어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바, 이로 인한 차별도 상당히 많이 느낄 것으로 판단됨

○보고서 내 부적응에 대한 원인에 관한 인터뷰에 따르면, 군 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 개인적 성격이나 대인관계 능력의 미흡을 지목하고 있음

- 대인관계 능력 부족은 느린학습자의 대표적인 특성
- 더욱 큰 문제는 부적응의 문제가 개인적 특성으로 치환되는 경향이 있다

는 것. 이는 부적응을 겪는 개인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군대조직으로 20대 초반 청년들을 집합시키는 현행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필요함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지의 인식조사 결과, '지휘관의 관심과 인식 변화'(28.3%), '열악한 근무 환경개선'(26.9%), '선임병 혹은 지휘관의 부당대우 근절과 법적 제재'(20.0%), '복무 부적응병사의 사전 식별 및 대처방안 교육'(19.7%) 순으로 응답함

- 군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이전보다 지휘관들의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지만 이는 어떤 제도와 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의 결과물로 보임. 즉, 이른바 “좋은” 지휘관을 만나면 비교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매우 힘든 군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느린학습자 가족과의 인터뷰에서도 병무청에서도 어느 정도 느린학습자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느린학습자의 경우 복무 부적응 병사가 될 확률이 비느린학습자에 비해 높음

- 즉, 이들은 여전히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존재하는 군대 내에서 복무 부적응으로 낙인찍히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큼. 느린학습자가 상대적으로 언어표현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불리한 요인.

-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군대 문화가 복무 부적응에 매우 적대적이며 이를 주로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

○현행 ‘징병검사가 불공정하다’라고 인식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469명 중 200명(42.6%)은 '현 징병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검사항목의 부족(24.7%)과 판단기준의 과도한 엄격성(20.0%)을 이유로 징병검사의 불공정 이유로 인식함

- 또한, 현행 징병검사과정에서 검사 결과가 병사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총 929명 중 51.2%인 476명이 '매우 영향을 받는다'라거나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징병 검사 결과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이지 않는 군대 내의 느린학습자

- 군인권센터가 상담에 대한 통계를 취합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매년 천여 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기준 1,699건의 상담을 진행함
- 상담의 범주는 구타, 가혹행위, 병영 괴롭힘 등 폭력 상황 이외에도 복지와 제도 등에 대한 상담도 포함되어있어 사실상 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2016~2020년까지 경계선지능장애에 관련된 상담 케이스는 단 2건에 불과함. 그중에서도 현역 복무와 관련한 고충 상담은 단 한 건임. 분명히 존재할 경계선지능 장애병의 복무 고충이 드러나지 않음
- 실제 병영 부조리나 왕따를 경험한 병사를 상담하는 경우 자신의 피해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런 경우 내담자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유효 상담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에게 어려운 상담이 된다고 함

<자료2> 느린학습자의 군대 내 부적응 관련 언론보도



출처 : EBS

-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 신체검사에서 경계선지능이 발견돼 4급 판정을 받은 A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산업체에 배치됐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 한 달 만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함. 고참과 동료들로부터 왕따와 무시를 당했고, 자살 충동과 우울증에도 시달렸음
- A씨는 “경계선지능을 가진 사람은 되도록 군대에서 면제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군대에서 일상생활하기 힘들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군대 가면 자살하고 그러는데...” 라는 말을 남김

<자료3> 경계선지능을 아십니까?



출처 : 시사IN

- 경계선지능을 가진 청년들이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으며, 일부 부모들은 어떻게든 장애판정을 받아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 애쓰기도 한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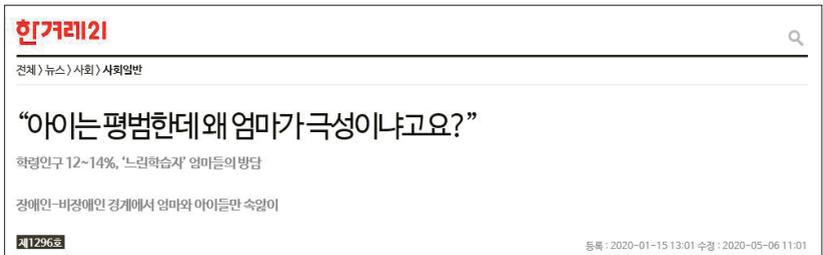
<자료4> 병역·취업도 '난관'... '이대로 어른이 되는 게 무서워요'



출처 : 노컷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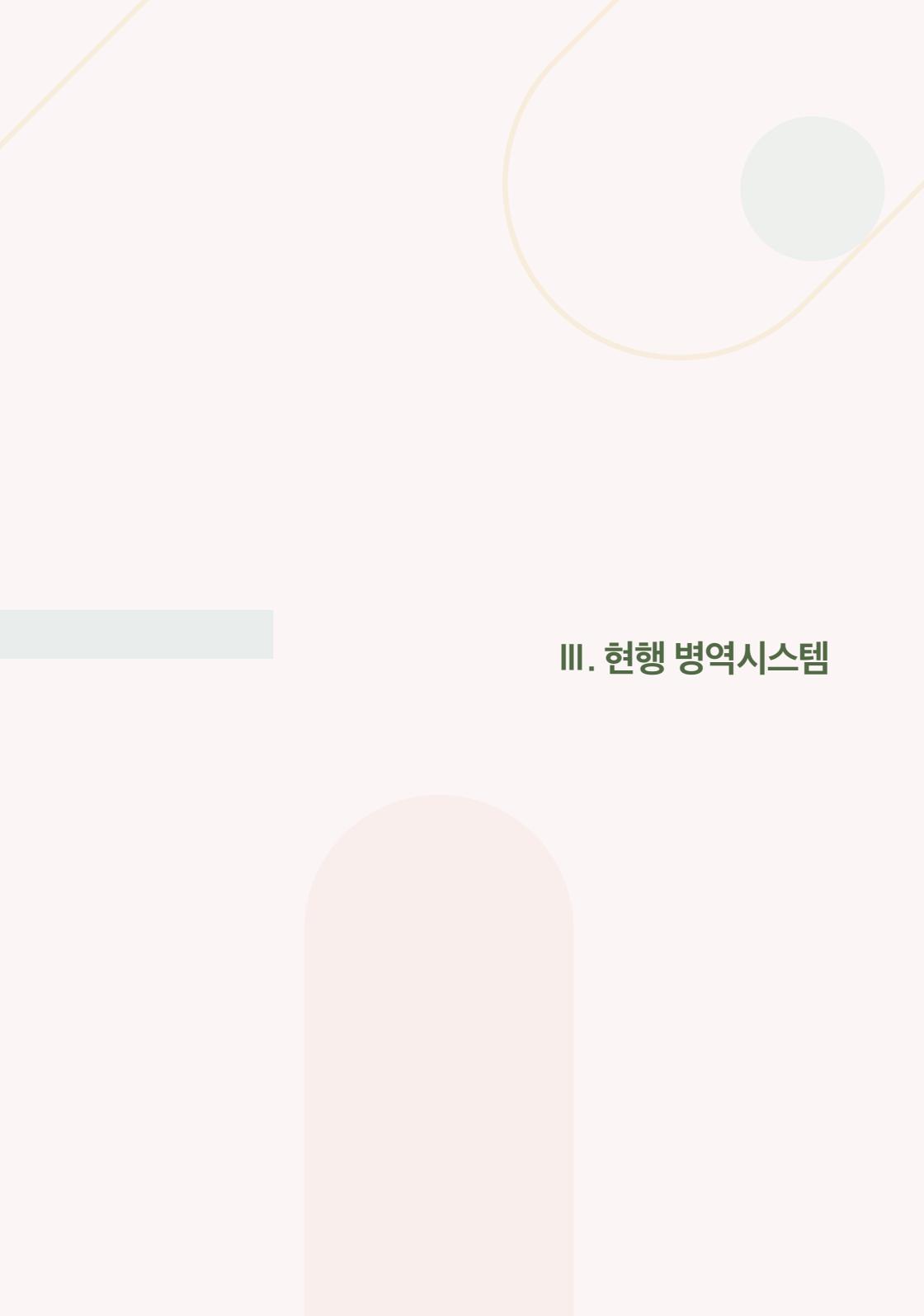
대전남자단기청소년쉼터 팀장의 말에 따르면 “군대에 가서 잘 정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일부는 관심사병이 되거나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재판정을 받아 나오기도 한다”라며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늘 조마조마하다”라고 이야기함

<자료5> “아이는 평범한데 왜 엄마가 극성이냐고요?”



출처 : 한겨레21

- 아이들이 나중에 군대에 가서 문제를 겪지는 않을까라는 걱정과 고민으로 일부러 아이의 장애등급을 받기도 함



III. 현행 병역시스템

III. 현행 병역시스템

○개요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 병적관리가 시작됨.
- 병적관리: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 병적관리의 예외 적용대상
 - 국외 출생자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주민등록말소지 지방병무청장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권리와 의무

- 각 군 모집에 의한 지원이 가능
- 25세 이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함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됨

[그림2] 병역 개요

18세	병역준비역편입(병역판정검사대상자 조사)						
19세	병역판정검사 실시						
	합격					불합격	
	신체등급 1급~4급					5급	6급
20세	입 영 연 기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6년제 대학, 대학원 (4학기)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 대학원(4학기 초과)	병 역 의 무 이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역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해병(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상근예비역(18개월) ○전환복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경찰(18개월) · 의무소방/해양경찰(20개월) ○사회복무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입영대상자(34개월)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23개월) ○전문연구요원(3년) 	예 비 군 8 년	전 시 근 로 역 · 전 시 근 로 소 집 대 상	재 신 체 검 사 2 년 이 내 확 정 처 분
22세							
24세							
26세							
27세							
28세							
30세							
35세							
37세	기피자, 미귀국자			전 시 연 장			
4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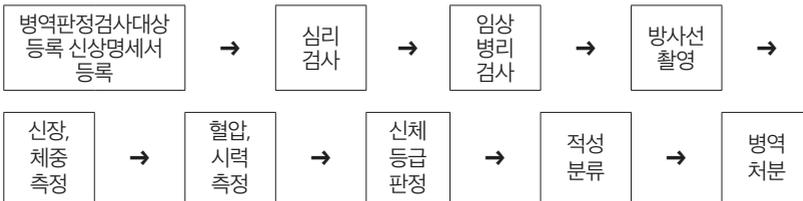
출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정

구분	내용
심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급 판정(1급~7급) ※ 신체등급 5,6급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등급 확정. 다만 질환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는 중앙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 확정.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병역처분 (신체등급 기준)	고졸이상 1~3급 : 현역병 입영대상 고졸이상 4급 / 고등학교중퇴이하 1~4급 : 보충역 5급 : 전시근로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검사 대상

출처: 병무청

○ 병역판정검사 절차



- 혈압, 시력 측정: 안과, 피부&비뇨의학과, 신경·정신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등

○ 병역판정검사 지참물

-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 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

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 병무용 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이어야 함

○ 병역판정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개요

-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류심사에 따라 전시근로역, 병역면제를 해주는 제도

대상

-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 ①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발병한지 2년 이상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장애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
- 손가락 또는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악성혈액질환(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림프종,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확진된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다만,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제외)

②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전시근로역

: 1년 6개월 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 고아, 혼혈인, 귀화자, 중학중퇴이하자, 성전환자

○ 현재의 병역시스템의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병역판정검사는 군대가 요구하는 전투력 수준에 맞춰 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징병제 역사는 194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느린학습자에 관한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과거에는 군이 일선 병사들에게까지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하지 않았고, 현재와 같은 기이한 수준의 징집률을 유지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임
-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면서 군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현역판정 기준을 낮추는 것 또한 문제의 하나임
- 한국 남성의 90%는 20대에 군대에 감. 우리나라는 군인이 되기에 적합해서, 군인이 되고 싶어서 군대에 가는 구조가 아닌 청년 남성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입대를 해야 하는 상태임
- 느린학습자 뿐만 아니라 징집되는 대다수 병사가 저마다의 건강 이슈를 가지고 입대하는데 최소한 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복무 가능한, 적합한 직무에 보직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시도가 필요함.
- '느린학습자'인 것은 고의가 아닌 것처럼 징병 과정에서 징집병 상태에 따른 신체 급수를 나누는 것 외에도 보다 세밀하게 분야별 복무 가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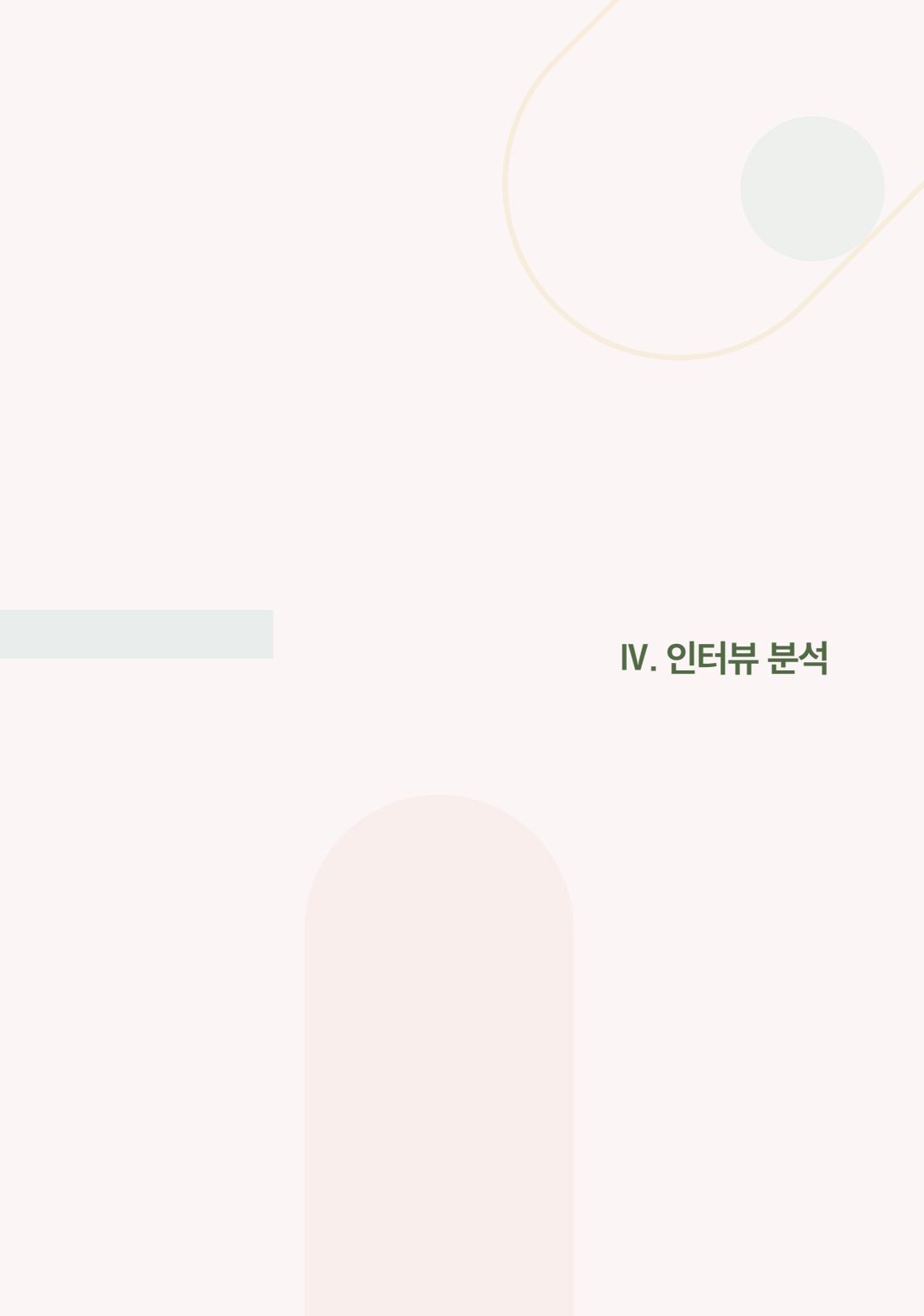
○ 2021년부터 변경되는 신인지능력검사

- 병무청 심리검사에는 정신건강 상태, 성격특성 등을 파악하는 인성검사와 지적능력 저하자(경계선지능 또는 지적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인지능력검사가 있음
-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개발하여 2010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활용하고 있음
- 인성검사 도구는 2010년 이후 2017년 전면 개선된 바 있으나 인지능력검사 도구는 2020까지 사용하고 있어 시대 상황과 병역의무자들의 지적능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021년부터 시작되는 개선된 신인지능력검사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019년부터 개발하여 2020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21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부터 적용함
- 개선된 신인지능력검사는 기존의 어휘력, 공간지각, 도형추리, 수열추리 4개에서 언어추론, 기초산술 2개를 추가하여 6개 유형으로 재구성하였고, 검사문항 또한 기존 58문항에서 89문항으로 확대하여 경계선지능 수준을 선별하는 데 중점을 둠

구분	개선 전(58문항)		개선 (89문항)
언어	어휘력 (18문항)	→	일상어휘 기초(17문항) 언어추론 심화(14문항)
공간	공간지각 (18문항) 도형추리 (10문항)		공간지각 기초(16문항) 시각추론 심화(14문항)
산술	수열추리 (12문항)		기초산술 기초(14문항) 수열추론 심화(14문항)

○신인지능력검사 도입은 환영할만한지만 근본적인 해법에는 한계

- 지적능력의 부족으로만 느린학습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 느린학습자가 가진 문제는 복합적이며 이것이 인지능력 검사만으로 과연 포착될 수 있을지 미지수
- 느린학습자의 숫자가 많은 만큼 이들을 분류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및 방법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성 제기



IV. 인터뷰 분석

IV. 인터뷰 분석

○느린학습자 당사자는 군대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군대 갈 시기의 많은 청년들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더 심각한 반응을 드러냄. 특히, 부적응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큰 것으로 확인됨
- 군대 문제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입대하기 막 2달 전 3달 전부터 계속 군대 관련된 영상만 봤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 조금이라도 잘하겠다 그런. (24살, 느린학습자 A씨)

군대가 이렇구나!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러면서 미리 떨고 갔었던 거 같아요. (23살, 느린학습자 C씨)

불안함과 그냥 미리 어떻게 보면 군대가면 폐급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못하는 애들에게. 그냥 폐급만은 안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미리 연습을 했던 거 같아요.”(24살, 느린학습자 A씨)

제가 자존감이 좀 낮다 보니까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가면 약간 쥐구리가 될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더 연습을 하면 편하니까 좀 더 연습을 했던 거 같습니다. (24살, 느린학습자 B씨)

군 문제 때문에 장애 카드를 받아야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생각한 케이스예요. (50세, 느린학습자 부모 A씨)

○느린학습자라는 사실을 군대 과정에서 확인하는 경우 포착

- 사회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신들이 느리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음

애가 이제 경계선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신검 때 알게 되었어요. (52세, 느린 학습자 부모 B씨)

신검 때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걸 알게 되어서... (25세, 느린학습자 A씨)

군대에 있었을 때 하도 일 배우는 게 느려가지고. 핸드폰 사용이 풀리고 나서 부모님한테 전화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소연 하느라고. 그 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학습하는 게 좀 느리다는 걸. (23세, 느린학습자 C씨)

○ 현재의 징병검사 시스템과 신병훈련과정은 느린학습자를 선별하는데 미흡한 수준

훈련소까지는 사실은 티가 안나거든요. (33세, 군관계자 A씨)

지금 하고 있는 인성 검사로는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드러낼 수 없다. (35세, 군관계자 B씨)

저희가 안내를 할 때 신검시에는 이것처럼 걸러낼 시스템이 없으니까 군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나의 이런 어려움을 알리고 자기한테 어떤 편한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는 그러면 지휘관한테 애의 상태를 말해야하는건지..(33세, 군관계자 A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군대 안가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체검사 기준을 점점 낮춰버리는 거죠. (35세, 군관계자 B씨)

어쨌든 징병 검사는 바뀌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거는 무조건... 우리 어떤 징병검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최대한 징집하기 위해서 디자인적인 징병검사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거고. 징병검사 제도의 그런 질병 분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구시대적인 것들이 있어요. (33세, 군관계자 A씨)

사전에 준비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하면 되거든요. 진단서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죠. (35세, 군관계자 B씨)

○본격적인 어려움은 신병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되면서부터 시작

- 일반적으로 군 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편해져야 하지만 느린학습자의 경우 오히려 반대양상
- 계급사회라는 군대의 특성상 이런 문제는 느린학습자의 군대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임

근데 지금은 군대에서 병사들도 줄어드니까. 병사 하나하나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장비도 많고 다뤄야 할 것들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업무도 컴퓨터 이런 거 다 만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33세, 군관계자 A씨)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선임들 이름 못 외우고 얼굴 못 외우고 많이 했었거든요. 얼굴 외우는데도 거의 3개월 걸렸어요. (24세, 느린학습자 B씨)

실제로 부대를 가게 되면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거든요. 외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실제로 어떤 퍼포먼스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눈에 피게 떨어지니까 이 친구를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그러면서 동기들이나 선임, 후임들한테 무시당하고 제제당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병영 부조리들이 많죠. 왕따, 폭언 가끔 폭행도 있고. (33세, 군관계자 A씨)

이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의 그런 전체적인 지적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군대 처음오면 다 원래 멀쩡한 사람들도 동서남북 잘 모르거든요....친구가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그렇지만 나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이러면서 상병 말쯤에 이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못 견뎌서 탈영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먼저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35세, 군관계자 B씨)

○군대에서도 여전히 외로운 느린학습자

- 느린학습자가 군대에서 만나는 사람으로 병사들을 현장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군간부’, 장병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그리고 그들과 같이 상담 임무를 수행하고 상담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주변 전문인력’이 있으며, 병사로는 ‘선임’, ‘동기’, ‘후임’이 있음
- 느린학습자 당사자와의 인터뷰에서는 타인과의 적절한 지지관계 형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특히,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선임과의 관계 맺음에 특히 어려움을 느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예상됨

제일 힘들었던 건 선임들하고 친해지는 게 힘들었던 거 같아요. (24세, 느린 학습자 B씨)

힘들 때는 토, 일, 월 이렇게 써야 빨간날에 써야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가족이랑 오래 있을 수 있다보니까 평일에 가면 애들 못 만나잖아요. 힘들어서 못 만나니까 힘든데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일에 한 번 나와봤는데 없어요. 만날 사람이. (25세, 느린학습자 A씨)

딱 좋은 선임이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 (23세, 느린학습자 C씨)

제가 약점(느린학습자라는 사실)을 알려봤자 저한테 좋을 게 별로 없을 거 같아서. (25세, 느린학습자 A씨)

○군대는 점차 느린학습자를 인식하고 있음

- 제도화된 틀은 없고 경험을 통한 일종의 사례 연구로서 느린학습자를 인식
-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기본적인

인 대응 방안인 상담에도 비전문가인 군간부의 상담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경우에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상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김민중·금명자, 2018)

- 향후 느린학습자에 대한 군대 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필요

경계선지능 장애는 아마 케이스 스터디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대장, 대대장들한테는 이게 이 친구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부대에서 예전에는 현역부적합 심의 자체를 쉽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33세, 군관계자 A씨)

중대장들이나 대대장들이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케이스를 좀 배우는 거 같더라고요. (33세, 군관계자 A씨)

상관하고도 계속 상담을 하고 어머님도 상담하고 상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는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도 굉장히 잘하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약간 좀 애매한 거죠. (35세, 군관계자 B씨)

간부들에 대한 느린학습자 포함해서 정서질환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접근방식은 확실히 교육은 돼야 될 거 같아요. (35세, 군관계자 B씨)

○사회복무요원도 꽃길은 아니다!

- 앞서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되지만, 집단생활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
- 비단 느린학습자가 아니더라도 공익과 산업체 근무에서도 많은 부조리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이들에게 이해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못지않게 거기는 군대처럼 훈련하고 이런 곳들은 아니어도 그 못지 않은 인격적 모독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게 공익이라고 해서 꼭 이

렇게 그들한테는 만만한 환경은 아닌 거 같았어요. (33세, 군관계자 A씨)

○군대 내 상담을 활성화하거나 사회복무 형태를 다양화하는 대안의 고민 필요

- 군대가 만약 느린학습자를 계속 징집해야 한다면 교육훈련 방식도 느린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변화 필요

상담이 조금 도움이 된 거 같아요? 네. 도움이 된 거 같아요. 마음속의 응어리를 털어놓고 조언받고. (23세, 느린학습자 C씨)

자기에게 힘이 되는 선임이 한명이라도 있고 그 선임이 잘해준다면 쉽게 해결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24세, 느린학습자 B씨)

익숙한 환경의 복지원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걸 너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52세, 느린학습자 부모 B씨)

처음에는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으로 가면 조금은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50세, 느린학습자 부모 A씨)

옆에서 조력을 조금, 그들을 이해하는 눈으로 조력을 해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3세, 군관계자 A씨)

근무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매우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으면 2, 3회. 길게 보면 1개월 동안 설명을 모른다든가 있긴 하거든요. 업무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그걸 좀 더 이제 쉽게 간추려서. 무엇보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창이 있었으면 좋겠다. (23세, 느린학습자 E씨)

○인터뷰의 한계점

- 느린학습자 당사자 인터뷰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당사자의 경우 전부 군대를 무사히 전역한 사람들로서 느린학습자가 겪는 군대에서의 어려움을 일부는 보여줄 수 있지만, 부적응 조기전역 등 보다 심각한 내용을 전달하지는 못함
- 이러한 한계를 토대로 인터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느린학습자의 군대 문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자기 결정이 중요

○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모두 걱정을 하지만 반면에 모두가 힘든 군 생활을 보낸 것은 아니라는 사실

- 인터뷰이 중 상당수는 군 경험이 긍정적이었고 심각한 부조리(군대용어)를 경험하지도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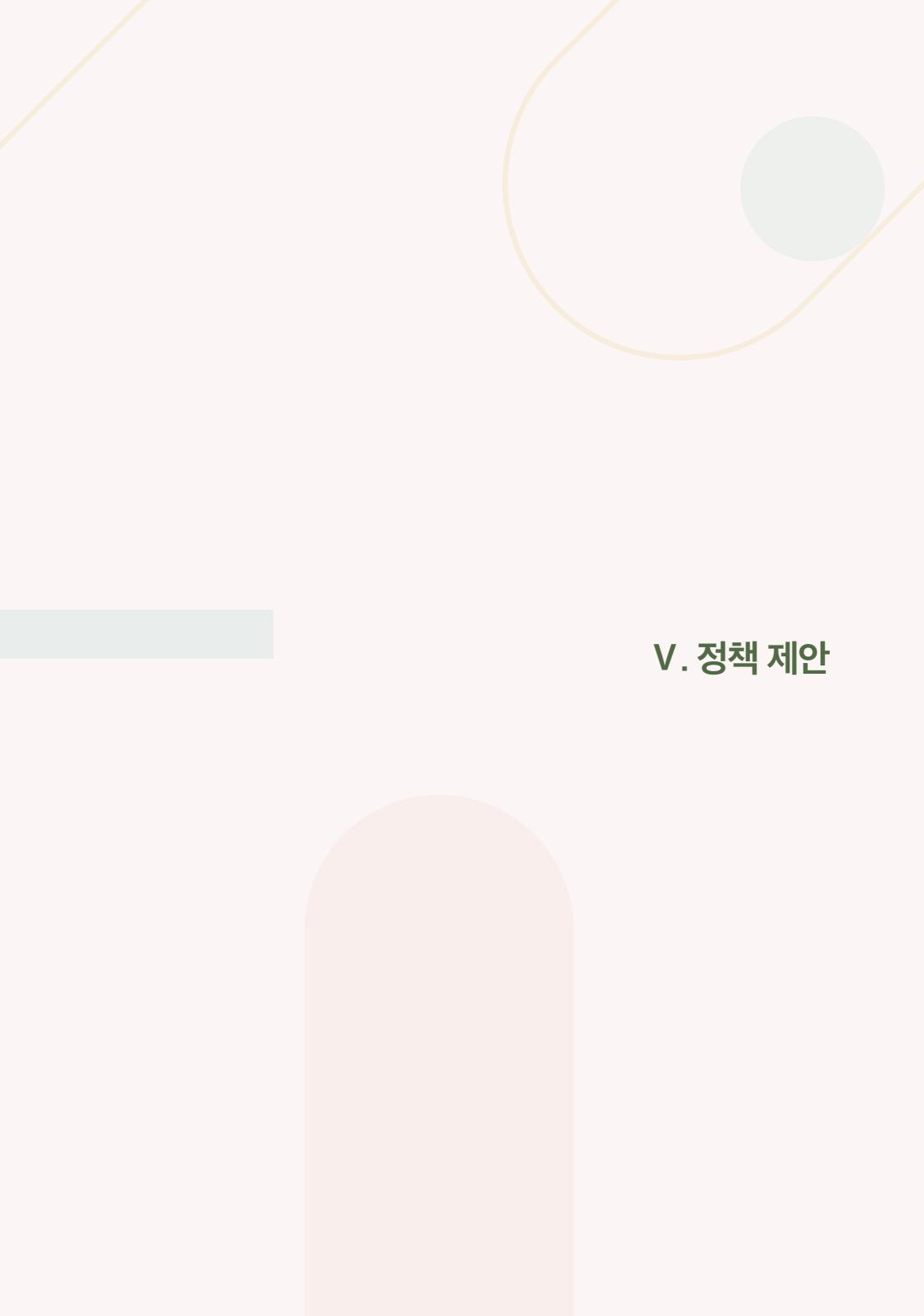
○ 군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화 효과도 분명 일부 기대할 수 있음

-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군대라는 공간은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반면에 개선된 측면도 분명하게 존재

○ 느린학습자의 많은 부분에서 부모의 개입이 과도한 측면이 확인되는데 군대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악됨

- 성인으로서 느린학습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함. 자신의 결정에

-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종의 성장 과정임
- 향후 느린학습자의 자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임
 - 당사자에게 군대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제 필요



V. 정책 제언

V. 정책 제안

1. 느린학습자의 군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 개인의 성격 탓이 아니라 경계선지능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함

- 이미 군대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느린학습자의 존재를 어림껏이나마 인식하고 있음
- 고문관, 폐급 등의 모욕과 비아냥을 넘어 느린학습자의 존재에 대한 인정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 필요

○ 이러한 논의가 현재의 징병제를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

- 향후 토론과 논의를 위해 후속 연구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군대의 부적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잠재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광범위한 연대 필요

2. 느린학습자를 선별할 수 있는 병역입영 관리시스템 구축

○ 현재 병역면제는 철저하게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통해 절차 진행.

- 느린학습자는 장애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정신과 진료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군대 면제를 추진
- 공공의 개입을 통해 이런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 필요

-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병역판정검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군대에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느린학습자의 경우, 이 단계에서 병역면제를 받는 것이 국가안보와 느린학습자 개인, 가족을 위해서 바람직
- 당장은 인성검사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과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적능력 측정을 넘어서 느린학습자를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3. 군대 내 시스템 개혁

○군 지휘관에 대한 “느린학습자”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의무화 필요

-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부적응에 대한 지휘관들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
- 교육프로그램 이수율 의무화하고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간부에 대한 제재조치 필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개선

- 일반적으로 고민 상담자가 없는 경우에서 군 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문제 중심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하며, 정신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남
- 병사와 상담관의 더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접촉을 가능하도록 지원

○동기집단이 군대 내 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짐

- 동기 멘토링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느린학습자가 보다 안정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접근 필요
- 이는 비단 느린학습자 뿐만 아니라 많은 부적응병사에게도 해당될 수 있음

는 방안으로 판단됨

- 군대 내 부적응의 문제는 비단 느린학습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폭넓게 연대할 필요

4. 현역 복무 부적합 정도에 따른 병역처분의 다양화

- 현재보다 좀 더 세분된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많은 느린학습자 당사자와 부모들은 느린학습자에 맞는 병역이 있다면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사회적 의무를 다하면서도 느린학습자들의 사회 적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로 및 프로그램 마련 필요

- 느린학습자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이는 후속 연구 등을 통해 추가로 논의되고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단, 단순히 입대와 입대불가라는 양 갈래 길만 있는 것은 해법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일종의 국가의 책임 회피

5. 느린학습자 당사자와 가족들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역량 강화

- 군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막연한 공포심을 느끼거나 역으로 낭만적 사고를 하는 것은 문제

- 비느린학습자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당사자와 가족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느린학습자 전역자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기획



VI. 결론

VI. 결론

○ 느린학습자에 대한 연구 자체가 부족하지만 느린학습자와 군대 문제에 대한 연구는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느린학습자를 언제까지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지 진지한 질문 필요
-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느린학습자 문제는 개인적 문제인 동시에 국가안보로 이어지는 국가적 문제로 볼 수 있음
- 현재 부적응과 인권이라는 양대 연구 흐름의 하위영역에서 느린학습자가 보다 분명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 이미 일부 연구에서 느린학습자가 포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구 역시 보다 확장되어야 함

○ 후속 연구의 필요성

- 동북권NPO지원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연구로서 느린학습자와 군대라는 새로운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작은 연구의 성격상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데 한계
- 향후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은 느린학습자, 조기 전역한 느린학습자, 훈련소에서 퇴소한 느린학습자 등 다양한 그룹을 추가로 인터뷰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전문적인 연구자가 결합하여 연구의 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

○ 연구에 참여할 2030세대 활동가들에게는 자아 성찰의 중요한 기회 제공

- 연구의 부차적인 성과지만 연구에 참여한 2030세대 활동가들은 자신들

- 이 은연중에 행했든 또는 행했는지 몰랐던 폭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게 된 매우 뜻깊은 기회
- 동시에 은연중에 집단적 폭력을 유인하는 또는 용인하는 국가 및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시금 확인한 순간임. 한 참여 연구자는 “군대에서 우리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역시 위험하다”라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힘
- 또한, 지금도 우리 주변의 느린 사람, 더딘 사람에 대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문화와 개인적 성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게 됨

참고문헌

- 김경열(2019), 특수교육 전공 이후 교사의 교직원 변화 탐색
- 김민중·금명자(2018), 군 상담 정책과 시스템: 그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 김주현 외(2010), 한국 육군 일개 사단에서 군 복무 부적응자들의 정신의학 적 평가: 그린캠프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 김현례 외(2013), 보호관심병사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정신건강상태 (정신간호학회)
- 서해정·박현숙·이혜수(2019),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경계선 지적기능아동의 지원방안 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 이은주·유은광(2018),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자살 시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의 '작은연구지원'은 지역사회의 의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풀뿌리연구모임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느린학습자의 병영생활에 관한 사례 연구

연구자	좋은동네연구소 협동조합(연구책임: 송하웅, 연구진: 김현성, 원석현)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주소	(01414)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아우르네 2층
전화	02-906-2018
전송	02-906-2019
이메일	info@dbnpo.kr
홈페이지	www.dbnpo.kr http://blog.naver.com/dbnpo http://facebook.com/dbnpo2018 https://www.instagram.com/dbnpocenter
디자인	아리에뜨 ariette.co.kr

*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작은연구
03

느린학습자의 병영생활에 관한 사례 연구